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

- 현실화된 품셈 제·개정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 이바지
-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 기여

□ 개황

정부의 표준품셈은 1968년 8월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 단가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총 680개 항목의 표준 품셈이 제정되었다. 이 중 전기부분은 1970년대 초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이관되었다. 이후 1985년 11월 과거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전운 29100-9548)받아 대한전기협회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초창기에는 품셈 제·개정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만 위임 받았으나, 지난 2006년 1월 전기부문 표준품셈 확정 및 공표 업무를 추가로 위임, 수행하게 됐다.

최초에 품셈 업무를 위임 받았을 당시에는 유지·관리 사업비를 3개 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협회, 전기협회)이 공동으로 분담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는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바뀌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고, 조직적이며 능동적인 진행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송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등 총 8개 분야 657개 항목으로 구성된 품셈을 매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 추진 현황

1단계(2002. 6 ~ 2004. 12)는 품셈 전면 개편 작업이 수행된 시기로써 지금까지 제·개정 업무에 국한하여 유지하였던 품셈의 내용을 작업 공기구 등의 현대화·최신화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는 품셈을 제정,



KOREA ELECTRIC ASSOCIATION

국가 예산 절감 및 공사비 적정 산정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대적인 체제 개편 작업이 진행된 1단계에서는 분야별 13개 장 총 425항목을 분야별 8개 장 총 584항목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2단계(2005. 1 ~ 2007. 12)는 1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항목 위주로 현장실사를 통해 재정비를 마무리 하였다.

3단계(2009. 5 ~ 2012. 4)는 현장실사 위주로 품셈을 제정하고,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개발 등의 품셈을 새롭게 적용, 유지·관리함으로써 그동안 일본의 품셈 복사판이라는 일부 비판적 여론을 잠식시키며, 우리나라 선진화된 고유의 품셈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3단계 사업에서는 신자재·신공법 등 신기술로 인한 품셈 및 배전직접활선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품의 개정으로 공사비 적정산정에 기여하였다. 특히, 신자재·신공법 등을 곧바로 품셈에 반영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 적응성 평가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통해 품을 제·개정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잠정 품으로 적용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정부 품으로 요청하는 등 품셈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과 적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전 망

지금까지는 품셈의 체제개편이나 현장실사를 통한 제·개정 업무 위주로 유지·관리를 하였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이 끝나고 4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2년 5월부터는 서류로만 보관되어 오던 지금까지의 수많은 자료를 DB화하여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클린 에너지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품을 새롭게 제정, 적정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제정 목적인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상 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KEA